

용산구, 자치회관 어울림한마당 “우리 동네 솜씨 한자리에”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17일 용산 아트홀 대극장 미르에서 한 해 동안의 자치회관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 화합을 도모하는 ‘2025년 자치회관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한다.

행사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와 작품 전시, 축하공연 등으로 구성되며, 용산구민과 자치회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어울림한마당은 참여팀과 응원 단 입장장을 시작으로 축사, 동별 무대 공연, 트로인기자수 이도진의 축하공연, 시상식 등으로 진행된다.

16개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된 다양 한 프로그램의 성과들이 무대와 전시

로 선보이며, 주민들이 직접 마련한 ‘참여 축제’로 꾸며진다.

공연은 17일 오후 1시부터 대극장에서 열리며, 전시는 같은 날 대극장 지하 2층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서예·캘리그라피·미술 등 50여 점의 수강생 작품이 전시돼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깊이를 보여준다.

특히 무대 공연에는 16개 동에서 구

성된 17개 팀, 총 220여 명의 주민이 참

여해 난타·풀불놀이·춤·악기연주·노

래 등 다양한 장르 공연을 선보인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1년간 같고 달은 실력을 뽐내는 자리인 만큼 작품성과 열정이 모두 담긴 무대가 될 것”이

라고 말했다.

현재 용산구는 16개 자치회관에서 14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문화·교육·복지 등 생활 밀착형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는 이번 축제를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주민주도 자치 역량을 키우는 교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자치회관은 주민들이 만나고 소통하며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자치의 핵심 현장”이라며 “구는 앞으로도 주민이 주도하는 진정한 자치 실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초구, 술·담배 불법판매 예방 '우리동네 술래잡기단' 활동 평가회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오는 18일(목) 서초구보건소 지하1층 건강카운터에서 청소년 술·담배 불법판매를 예방하는 주민 감시단 ‘우리동네 술래잡기단’의 2025년도 활동 평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올 한 해 활동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단원들의 활동이 담긴 영상을 감상하고 각자의 소감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 우수 활동자에 대한 격려로 사기 를 진작하고 현장에서 단원들이 직접 체 감한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도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해 청소년 보호 활

동의 효과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2017년부터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를 차단하고 지역사회에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을 펼쳐온 우리동네 술래잡기단은 서초구 18개 동에서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다양한 연령대 주민들 총 42명이 참여해 청소년 보호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지난 3월 단원 위촉 후 2차례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상·하반기에 걸쳐 지역 내 술·담배 판매업소 660 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추진 한 바 있다.

모니터링 활동으로는 술·담배 판매

시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고, 불법 판매 금지 경고문구 스티커 부착을 유도하는 등 2,491회의 캠페인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캠페인 대상을 전자담 배 판매업소까지 확대하고 야간 시간 대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우리동네 숨어있는 전자담배 판매업소’ 발굴과 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어지는 지난 11월에는 ‘음주폐해예방의 달’을 맞아 교대역 일대에서 개최된 만취예방 연합캠페인에 참여해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 예방과 건강한 음주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도 힘을 보탰다.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47개 동 전수 점검

서울시 내 초고층 건축물 27개 동,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20개 동 대상 전수 점검 추진

23일까지 시·자치구·민간 전문가 합동 점검반 운영…지적에 그치지 않게 현장 컨설팅 병행



육 이수 여부 등을 종합 점검한다.

시는 점검이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도록 소방·방재 분야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 컨설팅’을 병행해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할 계획이다.

건축물 규모·용도·준공연도 등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난예방과 피해경감계획의 미비점을 진단하고, 서울시가 마련한 표준 매뉴얼과 우수사례를 토대로 각 시설에 맞는 개선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기관 통보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1일(목) 이성은 서울시 재난안전기획관은 지하철 구파발역과 연계된 ‘롯데몰 은평’(판매시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장을 직접 방문해 피난안전구역 설치의 적정성, 재난대응훈련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성은 서울시 재난안전기획관은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재난예방계획부터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까지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빙栩없이 점검하겠다”라며,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현장 개선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장성 기자

관악구, 한국 ESG대상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상’ 수상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제3회 한국ESG대상’ 지방자치단체 ESG부문(종합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평가를 달성했다. 제3회 한국ESG대상은 사단법인 한국ESG학회와 국민일보가 공동 주관한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전 영역에서 ESG 경영을 선도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기관과 개인을 발굴하고 격려한다.

평가 분야는 행정부, 사업부, 지방자치단체, 개인 등 총 18개로, ESG 심사위원회가 ▲탄소 감축 ▲인권 존중 ▲투

명경영 등 ESG 실천 성과의 지속 가능 성과 효과성을 평가했다.

구는 ‘미래를 꿈꾸는 도시 The(D) ESG 약관’을 비전으로 환경, 사회, 거버넌스 3개 분야에서 20개 부서가 46개 사업을 추진, ‘관악형 ESG 행정’을 기반으로 ESG 전 분야에서 균형 있는 성과를 창출해 왔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핵심 과제로 두고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해 ▲건물 ▲수송 ▲폐

기물 ▲흡수원 ▲재난 대응 등 5대 분야 96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최초로 재활용 전용 봉투를 제작해 무상 배부하고 전국 최초 폐식용유 스마트 수거함을 운영하는 등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 보호 체계를 구축하며 주목을 받았다. 사회 분야에서는 지역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복지 모델을 발굴·시행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며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 조성에 힘써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SH,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 올해 마지막 회차 마무리

청년안심주택(예비)임차인·서울시 청년 등 150여명 대상, 부동산 기초·계약 교육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청년안심주택(예비) 임차인 및 서울시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한 ‘찾아가는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총 4회차)’이 12월 9일(화) 올해 마지막 일정으로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공연장에서 진행됐으며, 청년안심주택(예비) 임차인을 비롯한 서울시 청년 1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찾아가는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이 전월세 계약 구조와 위험요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권리와 책임할 수 있도록 돋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특히 전세사기, 강통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청년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제 사례를 통해 보증금 회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교육은 유튜브 채널 ‘개념있는 희애씨’를 운영하며 1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손희애 강사가 맡아, 청년 눈높이에 맞춘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계약·전·후 단계별 체크리스트’가 제시됐다.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통해 중개사 자격 여부와 등록 상태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전세가격 상담센터, 전월세 보증금 반환보증(보증보험) 가입 여력,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제도 등도 함께 안내해 청년들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올해 교육 성과와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청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전 세사기와 간통전세로 청년과 사회초년생들이 겪는 주거 불안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청년들이 전월세 계약 전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고, 위험 신호를 미리 발견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청년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청년과 유학생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최대 1.3배 완화 도시관리계획 결정

서울시는 2025년 12월 12일 개최된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통해,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관광숙박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주요 골자는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조례 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완화하고, 건폐율·높이 등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해 사업성을 높이고자 한다.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의 3성급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기준(객실, 부대시설 등)을 충족하고, 객실 비율에 따라 완화 규

모를 차등 적용하되 높이 제한으로 적정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경우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폐율, 최고높이 등을 완화 가능토록 계획하였다.(예. 일반상업지역 800% 이하 → 1,040% 이하)

또한 개정 중인 도시관리계획(안)의 시행 시점에 맞춰 관광호텔뿐 아니라 가족호텔·호스텔 등 다양한 숙박시설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제도 활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은 관광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과 교통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명동, 강남 테헤란로, 여의도 금융중심 등 9개 구역은 지속적으로 숙박시설 공급을 지원하고, 상권이 활성화된 신촌 등 54개 구역에는

3년 한시적으로 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시장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로 서울시는 이번 특화계획을 통해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지구단위계획 제안, 주민열람, 관계부서 협의, 심의 등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시에서 선행하여 마련한으로써,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는 사전 협의 절차만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숙박시설 공급을 보다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체류형 관광수요를 반영한 숙박시설 공급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